

2 뉴스

응과대 빠진 전정대학관 개선사업 투표 논란

〈응용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관〉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국제】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전자정보대학(전정대)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응대)의 교육·편의시설 효율화·개선사업 학생 총투표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응용과학대학(응과대) 학생을 대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교육·편의시설 효율화 및 개선사업은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공간 개선,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간 통합, 자치공간 리모델링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진행된 학생 총투표는 의견을 듣기 위

한 설문조사였다.

다만, 이번 총투표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응과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전정대와 소응대 학생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업 도안에는 응과대 학생회실과 응과대 소속인 우주과학과 학생회실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총투표 참여인은 전정대, 소응대 학생이었다.

응과대 학생회 정재현(응용화학 2020) 회장은 “투표 시작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 없이 전화로 내용을 전달받아 기획안이나 초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과대 사용 공간을 제외하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응과대 학생회실과 우



주과학과 학생회실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총투표도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라는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전정대 학생회 최령은(전자공학 2021) 회장은 “지난 2022학년도 5월에 시행된 공간협회의 연장선으로 소응·전정대가 이번 논의에 함께하게 됐다”며 “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응과대와의 논의가 필요하

다고 인지했을 땐 시기가 촉박해 전정대와 소응대 대상으로만 총투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설계 기획안은 전정대와 소응대가 사용하는 공간을 단순히 제작한 것으로 응과대 공간이 포함됐던 점은 실수였고 응과대 학생에게 오해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과대 학생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편의시설 효율화·개선사업의 총투표는 찬성 44.6%(308표), 반대 52.2%(361표), 기권 3.2%(22표)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를 근거로 전정대 최 회장은 “단과대 건물 사용자의 문제 인식과 사업의 잠재적인 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를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응과대 정 회장은 “동아리방이 하나도 없고 응과대 학생회실은 전정대 학생회와 함께 사용하는 점에서 학과 학생의 불만이 있다”며 “수업 강의실 배정 등의 문제도 교수님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응대, 응과대, 전정대에서는 각 단과대, 학과 대표자와 TF팀을 개설해 2월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전정·소응대 학생회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설계 기획안에는 ‘본 자료는 사업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될 예정’이라 명시돼 있다.

장서 포화, 양으로 평가하는 풍토도 한몫

〈중앙도서관〉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중앙도서관 장서 포화율이 한계를 넘어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장서 수는 증가 추세다. 중앙도서관의 3년간 늘어난 장서 수는 89,056권이다. 이는 우리학교와 장서 포화율이 유사한 부산대학교의 3년간 56,249권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다.

장서 포화율은 보관이 가능한 공간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정 소장 공간을 한계 소장 권수로 나눠 계산한다. 적정 소장 공간은 도서관 연면적에 0.3을 곱한 값이며, 한계 소장 권수는 도서관이 최대 보관 가능한 권수다. 한국학술정보연구원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따르면 장서는 도서관의 연 면적 대비 적정 소장공간에 최대 소장 가능한 한계 소장 책 수 이내로 보관돼야 한다.

2022년도 기준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공시자료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은 187%,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은 151%에 달한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보관된 책은 적정 수치를 1,127,967권 초과한 상태다. 장서포화율은 경북대(203%), 제주대(189%), 부산대(173%), 서울대(160%) 순으로 높았다. 중앙도서관은 “장서량은 도서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여

중앙도서관 장서포화비율		
	서울캠	국제캠
연면적	20,538.4 m ²	17,316.9 m ²
적정 소장공간	6,161.52 m ²	5,195.07 m ²
한계 소장책수(권)	836,734	705,491
실제 소장책수(권)	1,563,152	1,069,158
장서 포화비율(소장공간부족률)	186.8%	151.5%
연간 실제증가 책수(권, 2022기준)	15,707	9,729

※ 출처 :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자료기준일 : 2022년 3월)
※ 단위 : 미터제곱(연면적, 적정소장공간), 권수(한계 소장책수, 실제 소장책수)
※ 적정소장공간 : 연면적 * 0.3
※ 한계 소장책수 : ((개가)적정소장공간 * 0.7 * 113권) + ((폐가)적정소장공간 * 0.3 * 189권)
※ 장서포화비율(소장공간 부족률) : 실제 소장책수/한계 소장책수 * 100
※ 연간 실제증가책수 = 연간장서증가량 - 연간장서폐기량
※ 산출기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서가에 책이 들어찬 모습이다. 중앙도서관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식 서가의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황인찬 기자)

전히 장서량이 도서관의 명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폐기를 무조건 늘리는 것도 부담된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장서 폐기, 한정 공간 내 서가 구조 변경, 전자책 구입 확대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중 장서 폐기는 도서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적 절차 후 취득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고정자산 도서의 경우 총장 결재로, 이상은 학교법인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한정 공간 내 서가 구조 변경은 폐쇄식인 보존서고를 확대하거나

개방식 서가의 밀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은 “방학 기간에 개방식 서가에 비치된 자료 중 이용률이 낮은 일부 자료를 보존서고로 옮겨 신규자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며 “학생 자습 공간 확대 요구로 자료 소장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제캠 중앙도서관은 “자료열람실은 몇 년 전 보존서고를 확대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후 장서 증가로 현재는 보존서고도 모두 포화 상태”라며 “보존서고 확대

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개방식 서가의 규모를 키울 시 열람 공간이 줄어드는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책 구입 확대도 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신간도서 하나당 두 권을 구입했으나 최근에는 한 권으로 축소하고 있다. 양캠퍼스 중앙도서관 측은 “이용자 자료 이용 패턴이 변화하며 인쇄자료 선호도는 하락하고 전자책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도서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자저널, 학술DB 구독에 사용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흥현기(전자공학 2023) 씨는 “전자자료 확대 등을 통해 소장 책 수를 조절해나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서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도서관 측은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해 유연하고 지속적인 장서 폐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존이 필요한 장서들에 대해 국가기관이 나서서 장서 디지털화 사업 등 자료의 영구적 보존과 원활한 접근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